쇄신결사 모범도량 기치 포교·신행 활성화 한다

봉은사, 운영위 기능강화 등 사업계획 발표

유학자들의 불교탄압이 극심했던 조선 중기, 서울 봉은사는 '불교 중흥'을 상징하며 조선 최대의 사찰로 성장했다. 봉은사를 중창한 보우스님의 정신을 이어, 봉은사(주지 진화스님)가 '쇄신실천 모범도량'을 내걸고 포교와 신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봉은사는 최근 발간한 '2557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 기능의 강화 △남북불교교류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 실시 △어린이, 청소년, 경찰, 군포교 활성화 추진 △가족신행활동의 다양화 △자연공원 지정해제를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특히 보우스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우대사 봉은탑' 건립과 영정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다.

봉은사는 지난 1월19일 신임 신도회장에 최정수 세종대표변호사를 선출하고, 신도회 발대식을 가졌다. 신도회는 사찰 운영과 신도들의 신행을 이끄는 중심조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대사회활동도 추진된다. 봉은사는 올 10월 네팔 이주민과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불교국가 단체와 교류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와 협력해 대북지원 및 교류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계층별 포교도 활발하게 추진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카우트 법회를 진행하며, 학년별로 특성화된 법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포교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UCC 공모전 개최, 서울경찰청 법회지원활동과 강남경찰서 상설법당 운영, 군법당인 가평 안행사 정기 후원, 강남구청불자회와 메트로 불자회 지원 등 계층별 포교를 진행한다.

더불어서 봉은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법왕루에서 개최하는 선교율대법회와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 천수다라니 독송 3년 정진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선교율대법회는 대강백인 무비스님과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송광사 율원장 도일스님, 그리고 주지 진화스님이 월1회씩 법회를 주관하고 있다. 현재 동참인원은 1200여 명. 또 다라니독송에 평균 5000여 신도들이 동참하면서 신행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반면 자연공원법으로 인해 경내 건물 신개축이 불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신도들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보니, 마당에 가건물을 설치해 비바람만 겨우 피하면서 법회를 보는 실정. 주지 진화스님은 "봉은사의 수행과 포교를 가로막는 자연공원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보우스님 봉은탑' 건립 등 보우스님 추모사업을 통해 봉은사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우병호 종로소방서장의 예방을 받고 인사동 화재로 밤샘하며 애쓴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등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밤샘 화재진압 종로소방서 소방관 격려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난 17일 밤 서울 인사동에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병호 종로소방서장을 만나 "인사동 화재로 심려가 클 것 같은데 방문해줘 고맙다"며 밤새 화재진압을 위해 애쓴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이에 우병호 서장은 "화재 발생 이후 12시간 가까이 현장에 있다가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왔다"며 "아직도 현장에서는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목조건물에다가 지붕이 내려앉아 건물 내 화재진압이 쉽지 않았다"며 "다행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아 조계사에서 불공을 많이 올려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화재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소방관들의 노고가 클 것 같다"며 앞으로 화재나 인명사고가 나지 않기를 기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사부대중 지혜 모아 모범사찰 만들자"

조계사 '사찰운영위원' 신도임원 등 27명 위촉

조계사가 지난 18일 신도임원 17명 등 사찰운영위원 27명을 위촉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모범사찰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스님)가 사찰운영위원 27명을 위촉했다. 조계사는 지난 18일 대웅전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위원 위촉식을 거행했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190회 중앙종회에서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각 사찰은 7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을 운영위원으로 두고 종부행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계사 사찰운영위원은 교역직 종무원 10명, 신도임원 17명으로 구성됐다. 신도임원에는 회장단 6명, 지역본부 5명, 전법본부 2명, 교육법회본부 2명, 소임본부 2명이 참여했다.

주지 도문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난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사부대중이 지혜를 모아 사찰을 잘 가꿔나가자"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템플스테이 독창성 가산점

문화사업단 9일까지 특화 프로그램 공모

템플스테이가 올해 '시즌2'를 맞아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특화 프로그램 공모가 그것이다.

템플스테이 시즌2 원년을 맞아 '나를 위한 행복여행'을 슬로건으로 정한 불교문화사업단은 사찰별로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브랜드'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문화체험 중심이었던 템플스테이를 수행, 휴식, 사찰음식, 힐링 등 다채로운 영역으로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는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담, 치유 등 사회적 트렌드가 반영되는 등 독창적이고 특성화된 내용이면 가산점이 붙는다.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3월9일까지 불교문화사업단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독창성 사회통합성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되면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결과는 3월20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김하영 기자

'학사행정 우수 교육기관'

봉녕사승가대 학인 모집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도량인 수원 봉녕사가 승가대학 학인스님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오는 3월 사미니계 수계자를 포함한 신입생 및 편입생. 조계종 교육원이 지난 연말 실시한 정기실사에서 '교과과정 및 학사행정운영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봉녕사승가대학은 설법능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과 코칭기법 등 다양한 강의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 또 금강스님의 불교상용의례, 사찰음식 강의, 불교상담심리와 4년간 영어와 일본어 수업을 통해 불교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지 자연스님은 "봉녕사승가대학 초대 원장을 역임한 자운 율사스님이 직접 포살의식을 지도한 이후 매 학기 보름마다 범망경과 사미니 포살을 실시하고 있다"며 "인천(人天)의 스승으로 갖춰야할 자질을 교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3·1절 만해백일장 열린다

대통령상 등 최대 규모…대입 가산점 부여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오는 3월1일 오전10시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34회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전국의 백일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인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만해백일장은 3·1민족자주독립선언 제94주년을 기념하고 만해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34회째를 맞이한 이번 백일장은 시·시조와 산문분야로 나눠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별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영예의 만해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장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 충남도지사상, 동국대총장상, 한국작가회의이사장상(산문분야는 한국문인협회이사장상) 등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상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광복회장상, 조계종중앙신도회장상, 불교방송사장상 등과 상금 10만원이, 장려상에는 대한불교청년회장상과 상품이 각각 전해진다.

특히 고등부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대학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2일 오후6시까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를 통해 사전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동국대 중강당 앞에서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본·말사 주지인사

2월14일 종무회의

명현스님 천안 광명사

법중스님 완주 위봉사

방착스님 완주 화암사

페이스북·트위터는 여러분의 도반…

불교신문 페이스북 (www.facebook.com/ ibulgyo)
트위터 (twitter.com/ ibulgyo)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세미나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류는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 불기2557(2013)년은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의 해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국민으로서 지구촌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봉행합니다.

대회의 첫 행사로써 "불교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 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삼가 모시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57(2013)년 **2월 27일(수)** 오후 1:30 ~ 6: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제 _ 불교평화론과 평화운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

▶ **기조발제** : 불교와 이웃종교의 평화론
발표 : 오강남(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석좌교수)

▶ **발제** : 박경준(동국대학교 교수)
주제 : 불교평화의 이론적 모색
토론 : 이도흠(한양대 교수)

▶ **발제** : 유승무(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주제 : 불교평화운동의 성찰과 대안
토론 :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제** : 김용현(동국대학교 교수)
주제 :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
토론 : 이창희(민족공동체추진본부 기획의원)

불기2557(2013)년 2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수불